

영풍한 여수 여행

지은이: 윤정현

2019.10.26. 토요일 아침 난 일어나자마자 아빠께서 여수를
가자고 하셔서 비몽사몽 도착했다. 차를 타고 가는 중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네비게이션이 이상한데를 가서 시간만 더 늘어났다.

어찌어찌 3시간 만에 도착했다.

일단 불꽃놀이 하는데를 먼저 찾고 펜션을 잡는데 다 예약 돼서 갈
곳을 잃다가 가까운 상보르 펜션에 전화했다. 인터넷 사이트에
없던 방 2개를 추천하셔서 가서 방을 갔다.

1번째 방은 창문이 없고 2번째 방은 창문이 있다.

창문이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2번째 방을 선택했다.
선택하고 밖에 1시간동안 있을거니 다이소에서 쿨모자와 마스크를
샀다 자리 잡고 1시간동안 돛자리를 깔고 앉아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시작을 알리는 폭죽이 터졌다. 너무 재미있었다.

1시간동안 보고 따뜻한 음료를 먹으려다 가게들 다 짹짹 차있다.

너무 추웠다. 따뜻한 음료 먹는 걸 포기하고 펜션 가서 치킨을
시켜먹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보다가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고

분식집에서 밥을 먹고 해상케이블카를 탔다 너무 재미있었다.

그리고 아쿠아플라넷 가서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고 캔들도 만들었다

너무너무 재미있었다. 그리고 원래 검은 모래 해변도 갈려고 했고
카드도 할려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집에 왔다 막상

집에 오니 아쉬웠다 또 가고싶다.